

가을 풍경 속 반야용선 타고 극락세계 구경갈까?

지리산 천은사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은 몇 개일까요?”
 “어, 그거 막상 물으니 모르겠는데. 몇 개지?”
 “모두 20개야. 국립공원 중에 가장 먼저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어디일까 궁금하지 않아?”
 “어디데?”
 “지리산이지. 지리산 국립공원은 1967년 12월 29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고.”
 차는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를 거쳐 호남고속도로 완주 톨게이트를 빠져나가 전주에서 남원 구례로 이어지는 17번 국도를 달았다. 새벽 3시에 출발해서 그런지 도로를 달리면서 날이 밝아 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새벽이라는 시간. 어둠의 두께가 얇아지는 만큼 잠들었던 생명들이 다시 움직이는 소리는 두터워진다. 마을을 지나칠 때마다 조금씩 밝아져 있는 풍경이 여러 장의 그림을 주욱~ 펼쳐가면서 감상하는 느낌을 준다.

지리산 천은사
 “글씨가 참 묘하다. 왜 그렇게 구불구불하게 썼을까? 한 획도 반듯하지 않네. 글씨 못 쓰는 사람은 이렇게 못쓰지. 잘 쓰는 사람의 경지를 넘어선 사람이 쓴 글씨라고 봐.”
 일주문 현판 치고는 무게감도 장엄함도 없는 필체가 의외였다. 그러나 가볍거나 조약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때는 힘이 느껴지는 글씨다. “마치 글씨를 써서 물에 담갔다 건진 것 같다. 그치?”
 “그렇게. 누군지 모르지만, 술 한 잔 자시고 쓰셨나?”

단아한 매무새로 서 있는 일주문을 들어서면 왼쪽은 저수지 오른쪽은 숲속이다. 계곡 위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은 둥글둥글한 바위틈으로 흘러 저수지에 머문다. 계곡을 건너는 다리에 누각이 하나 서 있어 나름대로 운치를 이루고 있다. 누각의 이름은 수홍루(垂虹樓). 무지개가 드리운 누각이란 뜻. 주변경관과 누각의 조화가 감동적이다. 계곡을 건너면 갈로수와 기념품 상회가 먼저 손님을 맞이한다.
 천은사는 계곡 옆 산비탈의 지형을 아주 지혜롭게 이용하여 커다란 가람을 이루고 있다.
 “계단이 3차선이네.”



천은사 내경과 극락보전

돌계단을 올라 천왕문을 지나다. 천왕문 안에는 사천왕이 모셔져 있는데 천왕들 마다 발아래 악귀들을 밟고 있다.
 지혜장은 다문천왕 앞에 놓인 팜플릿을 건넸다. ‘일상을 떠나 지리산 감로숲에서 쓴다’는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절의 연혁도 간략히 적혀 있으니 읽지 않을 수 없다.

천왕문 안쪽 마당에는 석등이 하나 서 있다. 돌계단을 올라가면 왼쪽은 종각이고 앞으로 극락보전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눈에 들어온다. 천은사의 중심구역이다. 가을이 무르익은 지리산, 그 풍경속의 절은 중생을 극락으로 이끌어주는 반야용선이다. 부부는 어쩌면 절이 이미 극락정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앞은 극락보전이고 그 정면은 보제루, 왼쪽은 설선당, 오른쪽은 회승당. 이렇게 사각형을 이루고 있으니가 상당히 아늑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들지?”
 “마당 중간에 예쁜 탑이라도 하나 서 있으면 더 좋겠는 걸?”

“당신이 시주하여 아담한 3층 석탑 조성하시면 어떨까?”
 “그럴 능력이나 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능력이 있어서 더 이상의 소원이 없는 게 아니고, 소원이 있으면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닐까? 바라는 것, 목표라는 게 없으면 살아갈 힘도 안 생길 것 아니냐. 절집에서는 원력만 확고하면 어떤 불사든 이룰 수 있다고 하거든.”

보제루로 들어가는 난간은 3개의 나무계단이다. 거기 걸터앉아 극락보전과 지리산 능선과 하늘을 바라보는 눈 맛이 시원했다. 보제루도 그렇지만 설선당이나 회승당은 오래된 목조 건물인데 단청이 되지 않아 더욱 고풍스럽게 보였다.

부부는 극락보전 왼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중앙 불단 수미단 위에는 아미타부처님은 앉아 계시고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은 서 있다. 뒤에는 오래된 듯하면서도 맑은 기운이 느껴지는 후불탱화가 모셔져 있고 단집은 청룡과 황룡이 가운데 여의주를 두고 서로 다투는 형상이다. 부부는 3배를 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각각의 소원을 비는 시간이라도 갖는 듯. 아침 햇살이 문 밖을 찬란한 극락세계로 장엄하고 있었다. 극락보전의 안쪽은 이미 극락세계다. 법당에 조용히 앉아 차분하게 가라앉은 마음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행복 중의 행복이니 어디 가서 극락을 찾을 것인가?

잠시 후 조용히 법당 문을 열고 들어 온 여인이 재빠른 발걸음과 손놀림으로 불단을 정리하고 초를 밝히고 향을 사르는데 아주 익숙한 그 동작들이 마치 천녀가 내려와 불공을 준비하는 것 같았다. 부부가 일어나 불단에 합장 반배를 하고 나니 그녀가 말을 걸었다.

“멀리서 오셨나 봐요?” “네. 그런데 법당이 참 좋아요. 앉아 있으니 마음이 그렇게 맑아질 수 없어요.” “아, 그래요? 법당이니가 좋죠. 1774년에 세웠다고 하니가 236년 된 건물이지 않아요. 이 건물이 바로



‘샘 솟은 절’ 뜻 가진 지리산 천은사에는 반야용선 상징하는 오래된 극락보전 있어 물 관장했던 구렁이 죽어 화재 자주 일자 화마 누르려 술 취한 듯한 수체 현판 걸어

반야용선이거든요. 저기 위에 보세요. 용이 보이시죠? 그 가운데 여의주와 신령스런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도 보이시죠?”

예불준비를 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던 여인이 매우 친절하게 법당 내부를 설명해 주었다. 말이 빠르지만 매우 조리 있게 설명했고 자상한 어감에 그녀의 신심이 흠뻑 스며들었다. 그녀는 부부에게 아미타후불탱화를 찬찬히 보라고 했다.

“팜플릿에 소개된 그 탱화다. 정말 불보살님다 옆에 이름표를 붙여 놓았네.”

“네. 그런 분의 정성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지죠? 그림의 내용이나 색채 등이 아주 잘 어울리는 탱화로 손꼽힙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탱화 좀 보세요. 역시 1776년에 모신 것이라는데 우리나라에 만 있는 독특한 양식이라고 하더군요. 저쪽 신중탱화는 1833년에 지리산 칠불사에서 조성해서 이 극락보전에 봉안했다고 하고요.”

“이런 좋은 탱화들이 도난이나 손상당하지 않고

잘 보존되고 있으니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지혜장의 말에 여인은 손사래를 쳤다.

“어떻게. 한 때 도난을 당했었는데 다행히 다시 찾았답니다. 탱화가 다소 훼손되었는데 부사의 석정 스님 있잖아요? 불모 석정 스님께서 아주 정성을 다해 그림을 보수하고 죽자라 된 것을 이렇게 판에 붙여 보셨답니다. 이제 CCTV도 있고 판넬에 붙이고 했으니 도난당하는 일은 없겠지요?”

“저건 무슨 동물인가요?”

나팔수 씨가 불단의 양쪽 기둥 윗부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동물상을 가리켰다.

“아, 잘 보셨네요. 오른쪽에 있는 동물은 수달입니다. 물고기를 입에 물고 있지요? 저쪽 왼쪽은 해태예요. 해태 아시죠? 서울 광화문에도 있잖아요. 화마를 제압한다는 의미를 가진 해태와 물에 사는 수달을 조각해 놓은 이유는 천은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려는 염원을 담은 것입니다. 천은사에 얽힌 전설이 전해지는데, 처사님 들고 계시는 팜플릿에도 적혀 있으니 읽어 보세요. 제가 지금 예불 준비를 하는 중이라 좀 바빠요.”

마침 예불을 모시기 위해서인지 스님 한 분이 법당으로 들어왔다. 부부는 불단을 향해 다시 삼배를 올리고 스님에게는 허리를 숙여 반배를 하고 나왔다. 팜플릿에 있는 ‘천은사 유래’라는 제목의 안내 문에는 법당에서 다 못 들은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옛날에 이슬처럼 맑은 샘이 있어 절 이름도 감로

수(甘露寺)라 했는데, 어느 날 이 샘을 보호하던 구렁이가 밖에 나왔다가 어떤 사람의 땀팔매에 맞아 죽게 되었다. 놀란 스님들이 물어주고 치성을 드렸으나 물줄기가 끊어지고 말아 이후 절 이름도 ‘샘이 솟은 절’이란 뜻의 천은사(泉隱寺)로 바뀌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절 이름을 바꾼 뒤부터 원인모를 화재가 자주 일어나서 큰 걱정거리가 되었다. 스님과 신도들은 절의 수기(水氣)를 지켜주는 구렁이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늘 화재를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조선 명필의 한 사람인 이광사를 초청해서 마치 물 흐르듯 수기를 불어넣는 수체(水體)의 글씨로 현판을 써서 일주문에 걸게 하였는데, 그 뒤부터 화재가 없었다고 한다.

“아, 일주문 현판 글씨에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이광사라면 우리가 대흥사에서 보았던 대웅전 현판의 글씨를 쓴 그 분이잖아.”

부부는 극락보전 뒤로 한 단계 높은 곳에 위치한 진영각, 응진전, 팔상전, 관음전, 삼성전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모두 근래에 지은 전각들이다. 설선당 옆에는 우람한 보리수나무가 서 있고 그 옆에 천은사의 문화재들을 소개해 놓은 안내판이 있어 절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글=임연태(시인 본지논설위원) 사진=이승현(시인 사진작가)

생생한 부처님 말씀을 읽자!

불교의 중요한 경전은 이 <불교경전총서>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대중적인 언어!

<불교경전총서>는 당신의 불심을 일깨웁니다.

불자라면 <불교경전총서> 1질은 소장해야 합니다.

불교경전총서 (전 22권) 완역

500질 한정판



01. 화엄경 김지건 역/12,000원
02. 유마경 박용길 역/9,500원
03. 묘법연화경 현해스님 역/13,000원
04. 금강경 정호영 역/7,000원
05. 능엄경 김두재 역/12,000원
06. 원각경·승만경 전해주·김호성 역/10,000원
07. 정토삼부경 한보광 역/9,500원
08. 범망경·지장경 일지 역/8,000원
09. 과거현재인과경 해원 역/10,000원
10. 백유경 현각 역/8,000원
11. 부모은중경·우란분경·목련경·관음경 일지 역/7,000원
12. 대반열반경 강기희 역/8,500원
13. 아함경1 돈연 역/9,000원
14. 아함경2 돈연 역/9,000원
15. 범구경 석지현 역/9,000원
16. 숫타니파타 석지현 역/10,000원
17. 밀린다왕문경1 동봉 역/12,000원
18. 밀린다왕문경2 이미령 역/12,000원
19. 본생경1 이미령 역/12,000원
20. 본생경2 이미령 역/9,500원
21. 미륵경전 이종익·무관 역/7,000원
22. 해심밀경 모주 역/10,000원